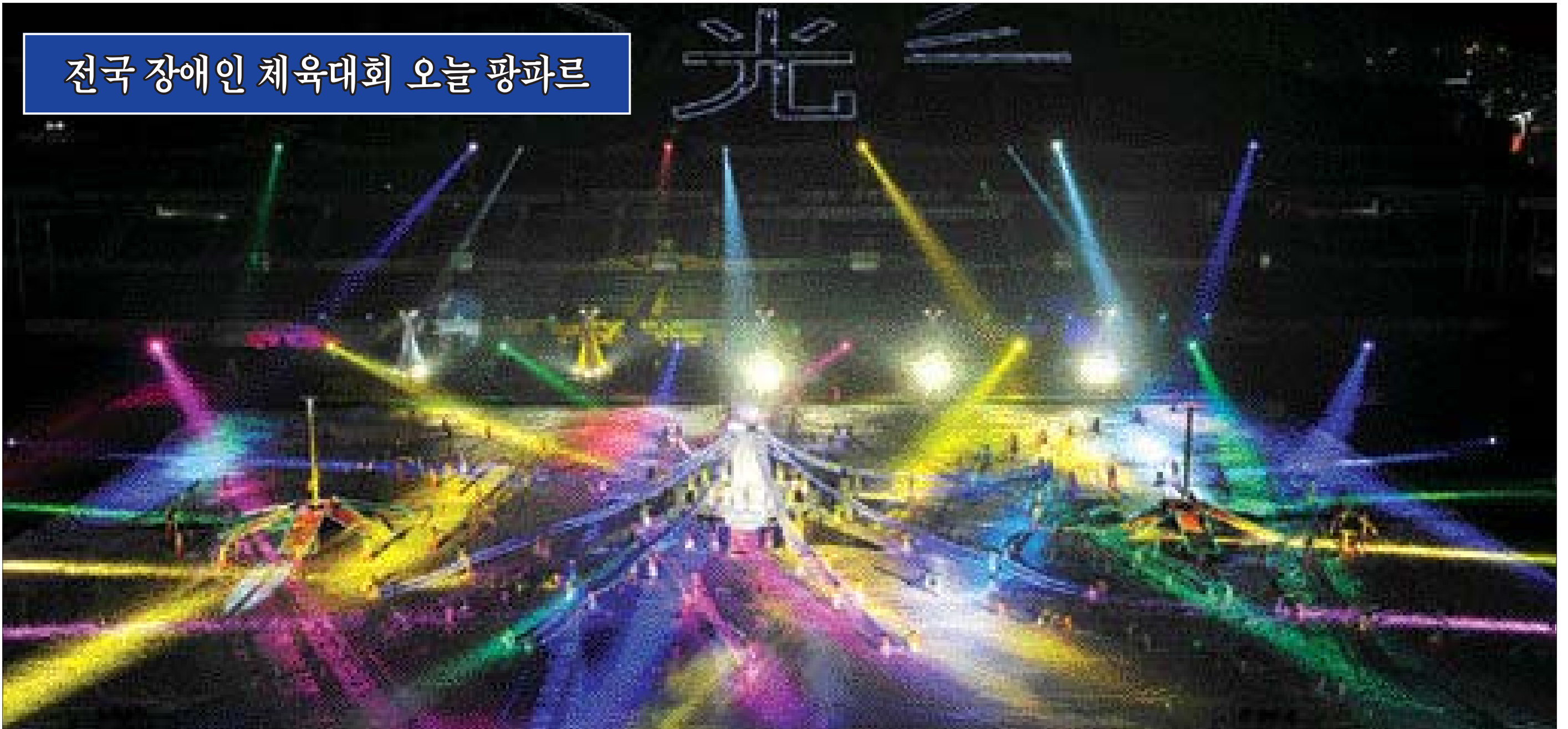


사계절 동안마다 환상적인 볼드폼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로 환풍
- (당첨 후환영) 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ndashy.co.kr 0801 320-7700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오늘 광파르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식 최중 리허설이 5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식후 행사로 '빛고를 광주'와 '빛' 테마 쇼가 진행되고 있다. 이 테마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어울림을 최첨단 영상기법으로 표현해 빛고를 광주가 화합과 빛의 터전임을 보여 주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KIA 윤석민 '방어율왕'

숨막히게 전개되던 2008시즌 방어율왕 싸움이 KIA 윤석민(사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5일 SK 와이번스의 김광현이 히어로즈와의 최종전에 등판하지 않으면서 윤석민의 방어율 1위가 확정됐다. 시즌 막판까지 방어율왕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지난 3일 김광현은 KIA를 상대로 7이닝 2실점(무자책)으로 2.39의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지키고 있던 윤석민(2.44)과 자리를 맞바꾸었다. 다승왕을 이미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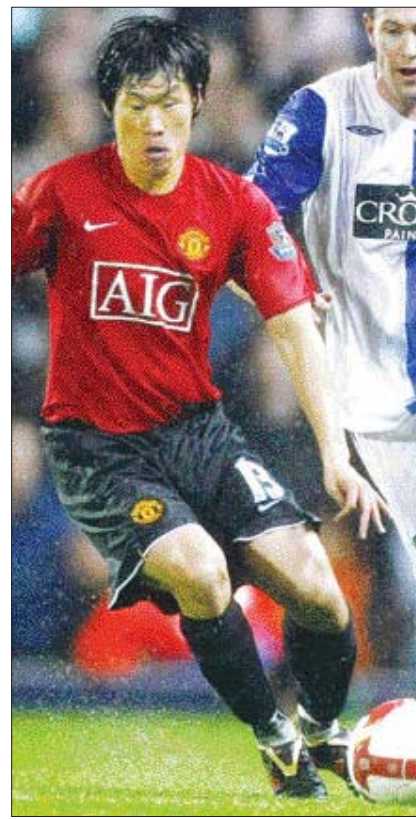
2.33...SK 김광현 제쳐

정지는 김광현은 150개의 탈삼진으로 한화 류현진(143개)을 누르고 탈삼진왕까지 거머쥐면서 3관왕에 올라섰다. 하지만 어깨피로로 2군에 머물고 있던 윤석민이 지난 4일 두산전에 전격 출격해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2.33의 방어율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하루만에 1위자리를 재탈환했다. 윤석민의 막판 뒤집기가 성공하면서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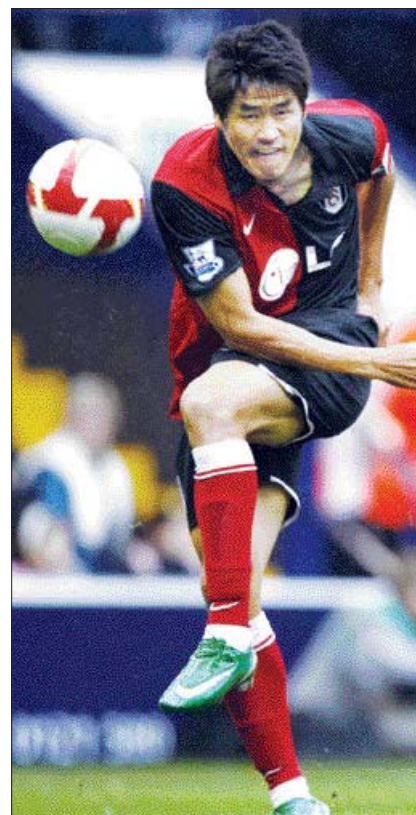
관심은 투수 3관왕의 기로에 선 김광현의 5일 등판여부에 집중됐다. 1위 탈환에 필요한 것은 4와 3분의 1이닝의 무실점. 역대 프로야구 투수 3관왕은 선동열 현 삼성감독과 류현진(한화) 밖에 기록하지 못한 타이틀 인만큼 김광현은 3관왕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지만 3일 110개의 공을 던졌다는 것이 변수였다. 결국 SK의 김성근 감독은 5일 최종전 선발 투수를 이영욱으로 낙점했고 김광현은 끝내 마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윤석민에게 방어율왕이 돌아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리미어리그 소식

박지성 후반 루니와 교체투입...공격 포인트 없어



설기현 후반 교체투입...김두현은 부상 결정



초반 부진에 빠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정규리그 2연승을 앞세워 중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박지성(27·사진)은 후반전에 교체투입됐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맨유는 5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 슈루즈버리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블랙번 로버스와 2008-200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웨스 브라운과 웨인 루니의 연속골에 힘입어 2-0 완승을 했다. 이날 승리로 맨유는 4라운드 첼시전 무승부(1-1무) 이후 불타던(2-0승)에 이어 정규리그 3경기 연속 무패(2승1무)와 함께 2연승의 기쁨을 맛보며 시즌 초반 부진에서 벗어났다. 박지성은 2-0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32분 웨인 루니와 교체돼 그라운드에 투입돼 왼쪽 측면 날개로 뛰었다. 박지성의 세 경기 연속 정규리그 출전이었지만 기대했던 시즌 2호 골을 뽑아내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설기현(29·풀럼·사진)이 정규리그 세 경기 만에 교체 출전했지만 팀은 0-1로 패했다. 설기현은 지난 4일 밤(이하 한국시간) 영국 웨스트브로모비치 호손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2009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웨스트브로모비치 엘비언(이하 웨스트브롬)과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26분 보비 자모라와 교체 투입돼 20여 분간 그라운드를 활활하게 누볐다. 올 시즌 개막전을 포함해 정규리그 3경기 연속 출전한 뒤 2경기 벤치를 지켰던 설기현은 이번 출전으로 다시 주전 경쟁에 청신호를 켜었다. 웨스트브롬 미드필더 김두현(26)은 무릎 부상으로 전열에서 빠지면서 '태극전사' 두 명의 맞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설기현의 투입으로 풀럼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후반 16분 웨스트브롬 로만 베드나르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동점골을 뽑아내지 못해 0-1로 패했다. /연합뉴스

김진현 극적인 결승골 전남, 울산에 2-1 역전

광주 22경기 연속 무승 '최다'

프로축구 광주상무가 포항의 5연승을 저지했지만 최다연승 무승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상무는 5일 영광 스포티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2008 K-리그 21라운드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22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졌다. 지난 1일부터 영광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등 승점 3점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상무는 전반 24분 고슬기의 골로 선취점을 올렸으나 포항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후반 12분 박원재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1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전남 드래곤즈는 울산 현대의 2008시즌 홈 경기 무패 행진을 깨뜨렸다. 전남은 5일 울산수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김진현의 극적인 역전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전남의 무서운 뒷맛에 울산은 올 시즌 홈 경기 무패(8승7무) 행진을 마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경기 수 늘어 최다 관중 예상

8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5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 7전 4선승제로

2008프로야구가 정규시즌 500만 관중 돌파의 기세를 몰아 새로운 '가을전설'에 도전한다. 5일 SK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끝으로 정규리그를 마무리 지은 프로야구가 8일부터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향한 가을 잔치를 벌인다. 포스트 시즌은 8일 사직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와의 준플레이오프(준PO) 1차전을 시작으로 성대함 막이 오른다. 이번 포스트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3전2선승제로 치러지던 준플레이오프는 5전3선승제로 바뀌었고 플레이오프(PO)는 5전3선승제에서 7전 4선승제로 경기수가 늘었다. 이에 따라 올 포스트시즌 역대 최다관중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종전 기록은 두산과 LG, 롯데가 격돌했던 1995년으로 무려 39만9천978명이 '가을 축제'에 다녀갔다. 당시에는 3위와 4위의 승자가 3.5게임차 이상 벌어질 경우 준플레이오프를 치



르지 않는다는 대회요강에 따라 롯데-LG의 플레이오프(7전4선승제), 두산-롯데의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만 열렸지만 잠실·사직구장이 3만 관중을 수용하는 대형구장인 덕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올해는 경기수가 증가한데다 3만 구장을 사용하는 SK와 두산, 롯데가 1·2·3위 포스트시즌에 올랐다. 시즌 내내 구름관중을 몰고 다니며 역대 최다관중 기록(139만9천735명)을 세운 '부산 갈매기' 롯데의 돌풍이 포스트시즌에도 이어진다면 포스트시즌 최다관중 기록이 새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입장

수입도 역대 최고액이 예상된다. 종전 포스트시즌 최고 입장수입은 지난해 36억3천271만3천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때 각각 1만5천원과 1만원하던 입장권이 올해는 2만5천원과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됐고, 2만5천원인 한국시리즈 지정석도 3만5천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각 팀의 광범한 힘겨루기가 이어져 '가을축제'가 최종전까지 간다면 포스트시즌 총 입장수입은 5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 가볍게 첫 승

인도에 5-2 '한수 지도' AFC 16세이하 선수권

한국이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16세 이하(U-16) 선수권대회에서 화려한 골 잔치를 벌이며 첫승을 신고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4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MHSK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첫날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이강이 혼자 두 골을 몰아 넣은 것을 포함해 모두 다섯 골을 터뜨리며 인도를 5-2로 제압했다. 전반 5분 만에 터진 김동진의 선제골로 전반을 1-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들어 이강이 두 골을 더하고 임창우, 손흥민이 한 골씩을 보태 석 점 차로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6일 같은 장소에서 인도네시아와 2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